



연등축제 봉축상에 미타사 우수상 봉은사 특별상 한마음선원

조계종 봉축위원회는 25일 올 봉축 연등축제 참가 우수 사찰 및 단체에 대해 시상했다.

최우수상에 해당하는 봉축상은 손수 제작한 등으로 연등축제에 참가하는 등 연등법회 제등행렬 부분에서 신선하고 질서정연한 행진을 보여준 강서구 미타사(주지 송강)가 받았다. 우수상(연등상)은 전통법회와 깃발을 제작해 제등행렬을 장엄하고 어린이 목탁행진 등 새로운 시도를 보여준 봉은사(주지 무상)가 차지했다. 또 원력상에는 수국사(주지 자용)와 진관사(주지 진관)가 정진상에는 진각종(통리원장 성초), 청룡

임연태 기자



'북한불교와 통일' 법문



법타 조국 평화통일불교협회장 스님(은해사 주지)은 5월 26일 봉은사에서 '북한불교와 통일운동'을 주제로 법문하고, 금강국수공장 후원에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문정사 주지에 취임



심중 서울 자비사 주지는 5월 24일 제주 선문정사 주지로 취임하고 봉불안식을 봉행했다. 선문정사는 북지불사에 뜻을 둔 제주시 독지가 성명자보살이 창건해 스님에게 시주했다. (064)99-8599

소청심사위원회에



중원 제주 관음사 주지는 5월 23일 조계종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선출됐다.



영조 생명광주지부장 스님(중심사 주지)은 13일 오후 3시

관음사에서 참법법회를 갖는다. (062)234-6602

대장경 이운 6백돌 법회



성원 강화 선원사 주지는 4일 고려 대장경연구소와 함께 '팔만대장경 해인사 이운 6백주년 기념대법회'를 봉행한다.

제주서 치과의원 개업



황면 前 조계종 기획국장 스님은 5월 24일 제주 애월읍에 '애월 박치과 의원'을 개원했다. (064)99-2972

대전불교신도연합회 창립



한만우 대전불교신도회장은 5월 27일 대전시 민회관에서 대전불교신도연합회 창립법회를 봉행했다.

진해서 '불교를 알면...' 특강



윤정광 방송작가는 8일 오후 7시 창녕 법성사(주지 법성) 10일 오후 7시 진해 경남불교교육원에서 '불교를 알면 평생이 즐겁다'

를 주제로 특강한다.

서초에 우곡선원 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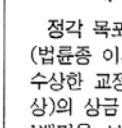
장명화 우곡산업사장(신수회 회원 및 현대 불교신문 1기 명예기자)은 5월 2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광명빌딩 3층에 우곡선원을 개원했다. (02)529-5027

'국제 시민스포츠' 유치



선상규 동국대 교육방송국장은 5월 23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 시민스포츠연맹(IVV) 총회에 참석, 2003년 개최되는 제8회 국제시민스포츠 올림피아드를 한국에 유치했다.

교도소에 3백만원 기탁



정각 목포 보현정사 주지(법륜종 이사장)는 5월 22일 수상한 교정대상 분상(자비상)의 상금 2백만원 전액과 1백만원을 보태, 총 3백만원을 목포교도소 시설개선 비용으로 기탁해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다. 스님은 "세 살살이가 힘이 들 수록 사회의 그늘진 이웃을 더욱 보살피는 것이 종교인의 몫"이라고 말했다.

우리민족돕기 불교운동본부 모금현황

●주간모금 총액 6,202,740원 △개인모금 총액 1,424,000원(82명) △봉제산 용문사 300,000원 △문경여고동창회 50,000원 △김해김씨문중 80,000원 △일본인 사포우 부부 3,000원 △한 주 한기금 1,369,240원(106명) ▲나진·선봉시 북녘 어린이 결연 △개인결연 2,307,170원(32명) △담은세상만들기 100,000원 △스포츠팀 2001 125,000원 △자비회 310,000원 △건국대학교 공과대학 노래패 137,330원 (5월 27일 현재 총 1,041,366,759원)

· 후원금 접수 (02)3672-5373
· 국민은행 818-21-0197-670
예금주: 최석호(우리민족돕기운동부)

금강경 알기쉽게 한자 풀이

한글세대 위한 독서서 펴낸 조돈규씨



"평소 한문을 많이 안다고 자부했는데 한문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육편과 불교사전을 찾는 번거로움 없이 경전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한글세대 위한 알기쉬운 금강반야바라밀경>을 펴내게 됐습니다."

1년여에 걸쳐 육편과 불교사전을 뒤지며 <금강경>의 가르침과 한자의 음과 뜻을 상세히 정리한 독습서를 자비를 들여 펴낸 경향출판 정보2실장 조돈규씨(동국대 불교대학원 4학기 재학중).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당시 어려운 경전을 읽고 체계적으로 정리해 누구나 불교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조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이뤄낸 조씨는

이은자 기자

175호 4면 성운스님 인덕노인복지관 1주년 기념 법회를 1일에서 7일로 바로잡습니다.

환경의 날에 만난 불자 "공해문제 해결에 안성맞춤이죠"

3년동안 환경수 7만그루 보시한 정원호씨



"3년간 도시공해에 강한 환경수 7만 그루를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고 생활하던 정원호씨(36·동방일예종도 대표)는 공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처방법을 찾던 중 나무목목을 보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

그래서 92년 경기도 파주와 경북 봉화에 땅을 구입하고 환경연구소의 추천을 받아 어떤 곳에서든 잘자라고 도시공해에 강한 자작나무 산목련 산수유 등나무 등의 환경수 목목을 직접 심었다. 96년부터는 식목일을 전후해 '푸른공간 만들기' 운동을 펼치며 1인당 5그루의 목표를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나무를 무료로 나눠주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아해 하더군요. 어느 공간이든 나무가 심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래서 자연에 의해서 환경공해가 해결되면 하지요."

도선사 신도였던 돌아가신 어머니와 절이 다니며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사찰의 아름다움을 보며 '환경 사랑'을 배웠다는 정씨는 내년 2월 뜻있는 사람들과 함께 환경보호단체 '푸른공간만들기모임' 창립을 서두르고 있다. 현재까지 일반회원

"스포츠 통해 재활의 꿈 다져요"

장애인 체전서 동메달 딴 한준희 군



"금메달을 못 따서 아쉽지만, 포상금을 받아 게임기를 살 수 있어 기뻐요. 그동안 도와준 소책새마을스님들과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소책새마을원생인 한준희(16·정신지체2급)군이 지난 5월 19~21일 경기 성남시 상무대 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강원도 대표선수로 육상종목(멀리뛰기 및 제자리멀리뛰기)에 출전, 동메달 두 개를 획득했다.

장애인학교인 원주청원학교 중등부 1학년에 재학중인 한군은 지난해 소책새마을에 입소해 이번 장애인체전에 처음 출전했다. 운동을 좋아해 학교 육상부에 들어간 그는 육체적·심리적·사회적 재활에 효과가 큰 스포츠를 통해 멀지 않은 정상인과 다름없는 삶의 기쁨을 누릴 것을 다짐하고 있다.

김재경 기자

공 고

◆ 제 17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 공모요강 변경 ◆

오는 10월 14일 개최되는 '제17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의 공모요강 중 입상자 상금내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광고하오니 작가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수상내역	작품구분	수 상 내 용
대 상 (종정상)	1명	상패 및 상금 500만원
금 상 (총무원장상)	2명	상패 및 상금 300만원
은 상	3명	상패 및 상금 200만원
동 상	4명	상패 및 상금 100만원
특 선	10명	상 패
입 선	00명	상 장

* 상금내역을 제외한 기타 공모요강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 문의처 : 총무원 문화부 (☎ 739-1830)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부처님조성·석탑·석등·석비·부도·물사건축·제작시공

효성석재공사

귀의 성보하옵고, 석불상 조각을 비롯하여 석탑 석등 등 사찰 경내의 모든 설치물과 조각품 뿐 아니라 어려운 현장 작업도 가능하오니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김 인 호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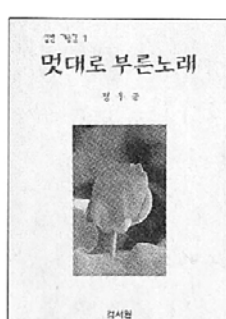

◆ 주요불사실적 ◆

- 남한산성 성 불 사 - 아미타석불 석탑 석등 공역비 제작설치
- 안 양 삼 성 사 - 석가탑 석등 사자상 제작설치
- 인 천 승 도 선 원 - 원형천지탑 및 심이지신장 조성
- 경기연천 육군5사단 205부대(옛 심원사) - 아미타불 조성설치
- 日本京都 豊山법사사 - 석물제작 수출 (그외 다수)

주소: 경기도 포천군 소흘면 송우리 227번지
전화 : 전시장 (0357)542-1527 야 간 (0351)874-4685
공 장 (0357)542-1528

'멋대로 부른 노래'

- 산거스님(淨宇)스님의 설법계송집 ① -



170쪽/값 4,000원

- ◎ 속이 답답하신 분은 이책을 읽으세요.
- ◎ 마음을 잡지 못하는 분은 이책을 읽어 보십시오.
- ◎ 어쩌해야 좋을지 모르는 분은 이책을 보십시오.
- ◎ 정신이 혼미하고 어지러운 분은 이책을 보십시오.
- ◎ 아직도 불교의 속뜻을 모르는 분은 이책을 보십시오.

그저 심심풀이로 한번쯤 읽어보고 지나가는 책이 되었으면 다행이다. 하지만 이노래를 서너번이라도 읊조려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인생이 무엇인지, 불교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라 믿는다.

-산거지(淨宇) 합장-

◆펴낸곳 : 경서원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55-2 T. 02)733-3345~6 F. 02)722-7787